| 현불 논단 |

가을, 다시 만난 인연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40년 전 지방의 한 대학서
밤새 '입영전야' 부르던 동기
최근에서야 옛 인연 이어가

친구가 건넨 마음담긴 봉투
무주상 보시로 우정 키워
가을 단상에 떠오르는 얼굴
세월 무상 이겨내는 원동력

가을이 꽤 깊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일까? 만추(晩秋)라는 단어가 '훅' 하고 가슴에 와 닿는다. 나뭇잎의 색깔과 바람의 결이 확실히 달라졌다. 가수 주현미와 하현우의 말마따나 우리는 지금 '쓸쓸한 계절'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조금 외롭고 약간 고독하다. 한낮인데도 빗방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린다. 하긴 밤에만 비가 오란 법은 없다. 바람도 분다. 불상 양쪽의 두 그루 협시불 은행나무에선 황금빛 비늘들이 후두둑 떨어진다. 비를 피해 형형색색의 우산을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스쳐지나간다. 이상은 목요일 오후 2시 남산 아래 불교학당 동악의 늦가을 풍경 한 컷이다.

누군가 가을엔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수신인이 아무나여도 좋은 그런 편지 말이다. 곧 세모(歲暮)가 다가 온다. 잊고 있던 옛 친구들이 생각날 때다. 문득 한 친구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를 만난 것은 40여 년 전 지방의 한 대학에서다. 고향이 충남 신탄진이라고 했다. '신탄진'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담배 이름이었다. 친구는 술은 좋아했지만 말수는 적은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이었다. 이즈음 부마사태와 10.26 사건이 일어났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밤새도록 '입영전야'를 부르고 헤어졌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불과 몇 년 전에서야 서로 연락이 닿았다. 친구는 대구에서 조그만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한다고 했다. 그럭저럭 살만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저 그런가보다 했다.

작년 이맘때의 일이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온 김에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했다. 친구부부가 학교로 찾아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슬그머니 서류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나간다. 친구를 보내고 올라와 봉투를 뜯어보았더니 농협직인이 찍힌 봉투 두 개가 더 들어 있었다. 살펴보니 두툼한 오만원권 지폐 묶음이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큰 금액이었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필요한 곳에 쓰라고 말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 다만 그는 시골에서 올라와 어렵게 대학에 자리 잡은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뿐이었다. 이후 돈은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우리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지금도 돈 이야기를 꺼낼라치면 정색을 하고 손사래를 친다. 그냥 주고 싶어서 줬을 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들은 말의 전부다. 만에 하나 그가 나에게 뭔가 바라고 봉투를 건넸을 가능성은 말 그대로 제로다. 불가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란 이런 친구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잠시 가을 단상에 젖어 조용필의 '친구여'를 부르고 말았다. 가을은 가을인가보다.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칼럼 주제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친구야, 우리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시절의 풋풋한 감정마저 잊고 살지는 말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을 줄 알았던가. 환갑이란 말을 한번이라도 떠올려본 적이 있기나 한가. 그런데 우리가 벌써 그 나이가 되고 말았으니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고장난 벽시계' 너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종종 만나고 건강하게 사세. 참, 부인에게도 안부 전해주게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어느새 가을비도 그쳤구나.



천미희의 **환경칼럼**

천연 수세미와 지구 사랑

우리 집 욕실엔 기다란 수세미가 대롱대롱 걸려 있다. '욕실에 웬 수세미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샤워 수건 대신 천연 수세미를 사용 중이다. 자연에서 수확해 건조시켜 만든 기다란 수세미로 등을 밀면 시원하게 마시지가 된다. 설거지를 할 때도 일반 수세미 대신 통수세미를 동그랗게 잘라 사용하고 있다. 이 수세미들은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한다.

샤워 후나 설거지 후 걸어두면 수세미의 조직들이 되살아나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가슬가슬 건조된다. 젖은 상태에서 번식하는 세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집의 수세미는 철원의 한 농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인데 표백처리나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지만 하얗게 포백처리 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비해 가격대가 높다.

그러나 표백처리나 방부 처리를 한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느니 일반 수세미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 국내산을 고집하고 있다. 천연 수세미는 일반 수세미 사용 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없고 사용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되니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최근 설거지용 수세미에서 생긴 미세 플라스틱 체내 축적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천연 수세미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착한 소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윤리적 소비이다.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는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 사회, 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인간과 동물, 자연과 환경을 착취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행위이다. 윤리적 소비 행위로는 친환경 소비 즉 에너지 절감 제품 사용, 유기농 제품 소비, 동물 보호 소비는 물론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로컬 푸드, 현지인들의 삶과 환경을 보호하는 공정 여행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착한 소비를 하려면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립스틱이나 아이세도우의 원료로 쓰이는 운모, 그 운모를 캐는 인도의 광산에는 여덟 살 전후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운모를 캐다가 골절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걸 알고 있는가?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단돈 5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가?

우리는 알고 소비해야 한다. 물건 하나를 소비하는 행위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누군가 말했다. 우리가 노동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값싼 옷을 사는 것은 노동착취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연료 소비가 많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 같은 비유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윤리를 가진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에 대한 불매 운동이 그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바로 잡는 사례도 많고,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의사 표현으로 대기업에서 유기농 매장을 오픈하면서 유기 농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했으니 말이다.

참치 캔 하나를 고를 때도 어류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는 파괴적인 어업방식인 집어 방식으로 참치를 잡는 참치 업계의 참치 캔은 거부해야 한다.

나는 한 개인일 뿐이지만 지갑 안에 의견을 표명할 힘을 지닌 사람이다. 내가 가진 그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실천이 될 것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화합의 전국비구니회 기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이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비구니승가의 도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앞서 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이 빠르게 해소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비구니스님들의 역할이 사회에 퍼지길 기원하는 불자대중이 많다.

지난 9월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본각 스님은 1064표를 얻어 제12대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경쟁후보인 육문 스님도 789표를 획득하면서 비구니계의 양분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이 후반으로 갈수록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승가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흑색선거가 펼쳐졌다. 이로 인해 비구니스님뿐만 아니라 선거를 지켜보던 대중의 탄식이 곳곳에서 전해졌다.

다행히 양분의 위기를 우려하던 대중은 본각 스님 경쟁후보였던 육문 스님과 육문 스님 지지자인 상덕 스님의 화합 입장문 발표로 시름을 덜었다. 육문 스님과 상덕 스님은 본각 스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서 벌어진 갈등에 사과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용서의 선착장에서 함께 자비의 바다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제 본각 스님에게 남은 과제는 선거과정에서 흩어진 비구니승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며 더 나은 전국비구니회를 만드는 일이다.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집행부 인사를 마친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교육·전법·한국불교 세계화·대사회 활동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주길 기대한다.

기부는 아름다운 보시행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없다. 매달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사무국을 찾아 보시금을 주고 간 50대 남성이 화제가 되는 건 그래서다. 그는 소외된 이웃에 써 달라는 말만 남겼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웃종교인이란 말도 들려온다. 아름다운동행에 들어보니 이 남성처럼 기부하는 익명의 자비보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동행의 후원계좌에도 '연탄나눔'과 '아름다운동행'으로 기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해피빈을 통한 온라인 기부도 는다고 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요즘 기부를 할 때면 보도자료를 돌리고 사진 찍어 신문에 내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요즘 세태에서 이들의 모습은 '기부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모범을 보여준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이다. 초겨울의 추위는 성큼 다가왔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온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계절이다. 기업인과 정치인의 '기부 마케팅'이 본격화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대형 기부가 있어야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정(情)과 감동은 금액으로 결정되진 않는다.

상에 머물 바 없는 보시란, '내'가 베푼다는 생색이나 칭송에 대한 기대, 미래에 얻게 될 복덕과 같은 상(相)에 집착 없는 보시를 뜻한다. 받는 이의 행복과 감사가 줄 자기만족에 대한 기대 또한 버려야 함이 물론이다.

연말을 앞두고 선의에 얽매이지 않는 무주상보시가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이 퍼지길 기대한다. 나부터 내 주머니에서 조금 덜어 이웃과 나누는 익명의 자비보시행에 동참한다면 우리 세상은 보다 따뜻해 지지 않을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HOT
• 친환경적 • 시공비 대폭절감
• 단열효과 탁월 • 습기에 강함
• 구조변경 용이 • 내구성 우수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